

석사학위논문

한·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연변과 제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리봉월

2002년 8월

한·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연변과 제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리 봉 월

리봉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한·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연변과 제주를 중심으로-

리 봉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한·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 어머니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두 지역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힘으로서 효과적인 자녀교육 지도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소재하고 있는 Y소학교의 5학년과 6학년 남·여학생 320명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한국제주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N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 남·여학생 33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표집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만 연구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하여 연변지역에서는 311부, 제주지역에서는 319부만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자료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연변조선족어머니가 제주도어머니보다 매우 수용적이며 과잉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며 제주도어머니가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연령별로 보면, 30대 어머니들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보다 매우 수용적이고 더 과잉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율-통제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어머니들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보다 매우 수용적이며 과잉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어머니는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덜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변조선족아동은 제주도아동보다 매우 수용적이며 과잉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지각하였으며 제주도아동은 연변조선족아동보다 덜 통제적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지각차이도 있었는데 역시 연변조선족남아와 여아 모두가 별로도 제주도남아와 여아보다 매우 수용적이며 과잉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제주도남아와 여아 모두가 별도로 연변조선족남아와 여아보다 덜 통제적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자율-통제영역과 비과잉-과잉영역에서 제주도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보다 매우 뚜렷하게 크다.

연변의 경우, 자율-통제 영역에서 아동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율성보다 그 허용범위를 작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아동은 어머니보다 더 수용적, 과잉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아동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에 부여하는 자율성보다 그 허용범위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변과 제주 두 지역 어머니들은 자녀 개성에 알 맞는 성장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연변지역에서는 전반사회의 인간발달을 위한 평생교육시설과 바람직한 청소년 양성을 위한 상담시설 및 학부모 관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양육태도의 개념 및 유형.....	5
2.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2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와의 관계.....	16
III.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19
2. 측정도구.....	20
3. 자료처리.....	21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22
V. 요약결론 및 제언.....	38
1. 요약.....	38
2. 결론.....	42
3. 제언.....	43
참고문헌.....	44
Abstrat.....	47
부록.....	50
감사의 글.....	57

< 표 목 차 >

<표Ⅲ-1> 연변지역조사대상.....	19
<표Ⅲ-2> 제주지역조사대상.....	20
<표Ⅲ-3> 검사도구의 구성 및 관련문항 번호.....	21
<표Ⅳ-1>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양육태도간의 지역별 차이.....	22
<표Ⅳ-2> 연령별 따른 연변조선족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24
<표Ⅳ-3> 연령별 따른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25
<표Ⅳ-4> 연령별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	25
<표Ⅳ-5>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양육태도간의 차이.....	28
<표Ⅳ-6> 성별에 따른 연변조선족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차이.....	30
<표Ⅳ-7> 성별에 따른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30
<표Ⅳ-8> 연변조선족남아와 제주도남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차이.....	31
<표Ⅳ-9> 연변조선족여아와 제주도여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차이	32
<표Ⅳ-10> 연변과 제주의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에 대한 차이 검증.....	34
<표Ⅳ-11>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35
<표Ⅳ-12> 제주도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36

[그림 목 차]

[그림 1]	8
--------------	---

< 부 록 목 차 >

<부록 1> 양육태도 검사지(어머니용).....	51
<부록 2> 양육태도 검사지(아동용).....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교육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한층 뚜렷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 전반사회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질적인 제고를 가져 왔다. 이 결과 많은 가정들이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지니게 되었으며 자녀교육을 위하여서라면 부모들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외동자녀(독신자녀) 가족이 많은 실정에서 자녀의 이상적인 진로를 위한 부모들의 헌신은 그 어느 나라 못지 않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 있는 연변조선족가정의 교육열은 또한 중국의 그 어느 민족 못지 않다. 연변 조선족가정의 높은 교육열은 조선족청소년들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우수한 조선족 인재를 배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도시상황에서 보면, 중국의 대다수 가정의 부부는 맞벌이(쌍직공) 이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에서는 외동자녀를 두었으며 또한 부부중심으로 한 핵가족체계를 이루고 있다. 비록 중국의 현 상황에서 탁아소, 유치원, 학전반 등 육아시설이 보편화 되었기에 어머니들의 사회진출에는 거의 불편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직업여성들의 출근과 더불어 사회활동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어짐은 일상적인 어머니 노릇을

하는데 다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조선족 부모들이 외국으로 돈벌이를 나가서거나 아니면 이혼 등으로 인해 물리적인 부모부재 현상을 초래한다. 비록 대부분 부모들은 부득이 한 상황에서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출국하여 돈벌이를 하거나 이혼을 선택하지만 이로 인한 자녀양육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이미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으로 되었다.

가정이란 사회적 압력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막고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즉, 방어적 기능과 사회를 대신하여 사회적 욕구를 아동에게 전하고 아동의 사회화를 돕고 문화를 전달해주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임성숙, 1989, 재인용).

또한 아동은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어머니는 아동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식·무의식적으로 지적, 정서적 특성을 심어 주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는 중요한 사회화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녀는 어머니와 끊임없는 사태 속에서 학습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되므로 어머니-자녀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홍신, 1995). 안복레(1971)에 의하면 부모의 태도나 행동이 일관성이 없이 수용적이 되었다가 거부적이 되었다가 하는 부모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방종, 부도덕 행위, 비행 등 자기통제 능력이 결여되기 쉽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녀의 성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고 성장하게 하려면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어머니들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나 일관성 있는 가치관 확립과 실제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일방적인 양육

태도 강요나 지배적인 양육태도 등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성을 허용하는 수용적인 사례 깊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정황순, 1996).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사회적 발달과 상관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나라간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양문화권에 속한 두 나라간의 아동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보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부모, 특히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다방면 비교연구가 적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중국·연변과 한국·제주도 두 지역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분석을 통하여 두 지역 어머니들의 양육태도상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 효율적인 자녀교육 지도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지역별, 연령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지역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어떤 차

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변과 제주를 중심으로 한·중 어머니양육태도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허나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이 살고 있으므로 본 연구 진행의 가능성 요인을 고려하여 오직 조선족어머니와 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근히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아동 그리고 제주도어머니와 아동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얻게 되므로 한족을 포함한 전 연변지역어머니를 상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제한점을 느끼게 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두 지역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및 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양육태도의 개념 및 유형,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부모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양육태도의 개념 및 유형

1) 양육태도의 개념

양육태도(rearing attitude)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Fishbein 과 Aize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적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손희, 2001, 재인용)

김재은(1974)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머니가 나타내는 태도이라고 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태도를 말하며, 어머니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에 관한 어머니의 반응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프로이드나 에릭슨의 발달단계에서는 각 단계마다 부모가 어떻게 대

처-반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처-반응이 일관되게 지속되면 이것을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이지윤, 2000). 즉,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게 되고, 이 방식은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은 이 속에서 사회적인 습관 체계를 구축하여 특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인성과 행동은 이러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사회적·성격적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보여 주고 있다(이정희, 2001).

이를 종합해 보면,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관하게 지속되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에 대한 반응 형태를 말한다.

2) 양육태도의 유형

17세기만 해도 훈육 및 체벌이 가장 효율적인 양육태도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겨 왔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심리학의 발달은 양육 태도에 대한 지식을 증가 시켰고 부모의 태도변화도 가져왔다.

부모와 자녀관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Freud 학파에 의해 제기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신분석학을 위시한 심리학이론들은 아동의 초기 경험을 강조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유형에 대한 이론적·실험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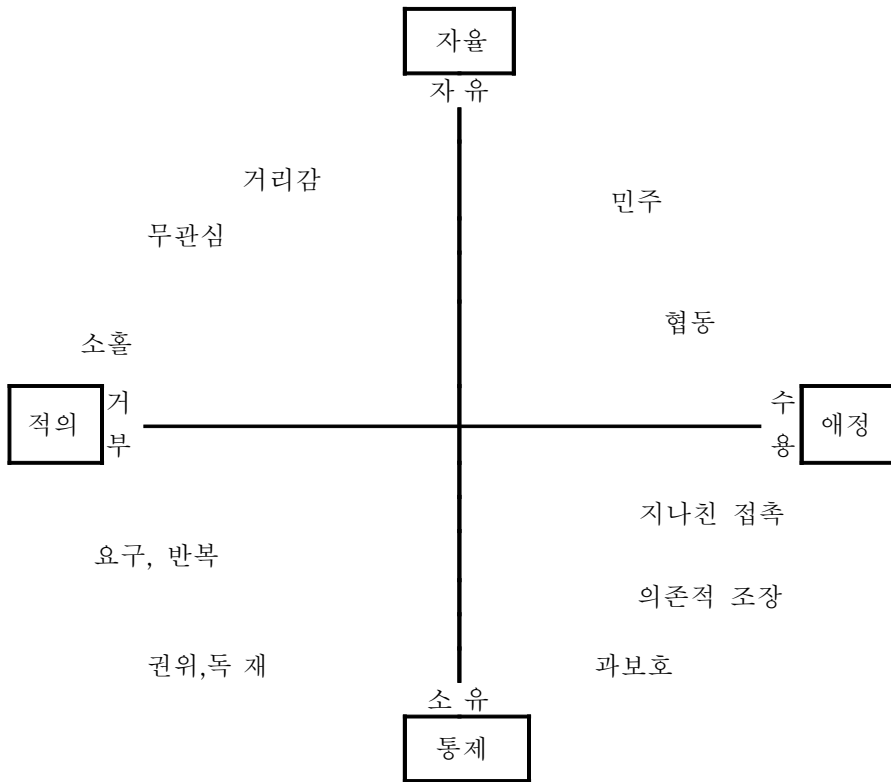
그 뒤로 아동 발달심리연구자들은 아동의 지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사이의 관계 규명에 관심을 두었으며 미국의 정신위생 운동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태도와 방법의 연구에 관심을 쏟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양육태도를 처음 이론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Symonds는 부모·자녀의 관계를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과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을 양극으로 하는 두 개의 요인 축에 의해 2개 차원으로 양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2개 차원을 다시 지배에서 기대형과 엄격형,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Symonds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태도는 중용을 택하는 것, 거부적, 지배적, 과보호적, 복종형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Symonds의 이론은 정신분석학 이론을 기초로 임상사례에 의거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을 뿐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태도를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설명하는데는 실패하였다는 비판이 있다(이원영,1983, 재인용).

그 후 Shafer(1961)는 “The Berkeley Growth Study”에서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자녀의 신생아,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에 의해 Bell과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애정-적대(Love-Hostility)의 축과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축으로 구분하여 양육방식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였다(이혜숙, 2001).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Schaefer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자율-애정사이의 양육태도와 통제-적의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

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율-적의사이의 양육태도와 애정-적의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방임형과 익애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1】 아동 양육태동에 관한 가설적 모형(출처: Schaefer, 1959)

Schaefer의 가설적 모형은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의 양육태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유형

을 애정, 자율, 성취, 합리성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켰다. 이는 Schaefer가 제시한 2개의 양육차원 외에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의 2개 차원을 거의 망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태동에 대해 분류하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Schaefer의 두 개의 축, 애정-적대, 자율-통제 차원에 대한 적절성은 Becker(1964), Mussen(1969), Kagen(1969), Hurlock(1978)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으며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양육태도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로서 자녀에게 자유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로서 가장 권고할 만한 태도이다.

둘째, 애정-통제적 태도로서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이다.

셋째, 적의적-자율적 태도로서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부모의 태도이다.

넷째, 적의적-통제적 태도로서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태도이다(김신자, 2002).

한편, 김기정(1984)은 부모 양육태도를 자아이론가들에 의하여 주장된 자아개념의 고양 또는 손상과 관련된 심리적 관계의 조건을 이론적 근거로 하였다. 김기정의 부모 양육태도 유형은 위의 네 가지 유형과 일맥상통하면서도 비과잉-과잉이라고 하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즉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거부: 수용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

감적으로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거부는 애정이 복잡하고 무관심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비난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율-통제: 자율은 자녀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며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통제는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가 많으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비과잉-과잉: 비과잉은 항상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성취하기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과잉은 항상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Maccoby (1980)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정하고 애정을 표현하지만 자녀에게 매우 거부적인 부모도 있다. 이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자녀를 싫어하고 귀찮은 짐으로 여기기조차 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통제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밝혀 준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Baumrind(1967, 1977)의 것이다. Baumrind는 부모의 행동을 분석하여 통제의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독재적 부모,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이다. 독재적 부모는 매우 제한적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규칙을 부과하며 그것에 무조건 따를 것을 원하면서도 그 이유는 별로 설명해 주는 법이 없다. 자녀가 따르지 않으면 강압적인 훈육을 사용하기도 한다. 권위적 부모는 융통성 있는 양육방식을 사용한다. 이들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며 분명히 따를 것을 요구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당한 자유를 부여한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의 욕구나 견해에 반응적이다. 자녀가 규칙, 제한에 순종하지 않으면 납득하도록 설명해 준다. 그러나

피치 못할 경우에는 강압적인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느슨한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허용적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녀들이 기분이나 충동을 제멋 때로 표현하게 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최순영·김수정 1995, 재인용).

또한 이원영(1983)은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 태도의 5개 차원의 분류이며 부부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여 부부관계, 수용적 태도,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익애적 태도 등 5개 영역으로 한 분류이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의 영역으로 한 분류 등도 있었는데 그 분류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마다 대개 애정의 정도, 통제의 정도, 혹은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일반적이지만, 양육태도를 몇 개의 양상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서 자식들에게 항상 좋은 성적만을 강요하는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고려한 김기정(1984)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각의 하위요인별 개념은 측정도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유형이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Schaefer의 분류의 행동 특성 및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정적-자율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자율적, 민주적, 애정적, 협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피한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창의적, 독립적, 자율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나, 때로는 약간의 공격성이나 고집을 보일 때도 있다.

애정적-통제적인 태도는 사랑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의존적인 행동을 보이며, 또한 불안정한 정서를 갖고 주의획득 기제를 많이 쓰며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통제-적의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 반항적, 공격적, 적대적이므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부모에 대해서는 애정이 결여되었다고 느낀다.

자율-적의적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불안정한 정서와 움츠러드는 행동을 보이고 주의획득 기제를 사용하며 심하면 범죄를 초래한다고 한다(박외순, 2000).

Baumrind는 유아원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학령 전 아동을 활발하고 우호적인 집단, 혼란 되어 있고 화를 잘 내는 집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집단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자녀와 부모의 행동유형은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 첫째로 부모가 권위적일 때 자녀는 대체로 활발하고 우호적이고 명랑하며, 사회적으로 반응적이고, 자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성인이나 또래 모두에게 협조적이다. 둘째로 독재적인 부모의 자녀는 혼란 되어 있고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변덕이 심하고 외관상 불행해 보이며, 쉽사리 화를 내고, 비교적 목표지향성이 약하고 주변사람들을 괴롭힌다. 셋째로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들(특히 남아)은 두목인양 으스스대며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비교적 목적없이 행동하며 독립심이나 성취심이 매우 낮다.

Baumrind(1977)는 자녀와 학부모를 아동이 8-9세가 되었을 때 다시 관찰하였다. 권위적인 부모의 자녀는 인지능력(즉, 사고의 독창성, 성취동기가 높음, 지적 도전을 좋아함)과 사회적 기술 (사고적이고 솔직하며 집단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통솔력을 나타냄)이 여전히 비교적 높았다. 반면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두 부분 모두에서 미숙하였다. 또한 독재적인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학령기 동안에도 여전히 매우 독재적일 때 남자는 여아보다 성취에 대한 관심이 낮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컸다. Maccoby 과 Martin(1983)는 피험자들을 한번 더 조사한 즉 국민학교 때의 인지적·사회적 능력패턴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최순영, 김수정, 1995,재인용).

Hurlock(1973)은 그의 자녀의 행동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지배형의 부모 아래서 자녀는 대

개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예의가 바르나, 대신 반항적, 투쟁적, 자학적 행동이 많고 불안하며, 자립성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고, 보호형의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보호하므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늦고 의존심이 강해 활발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적인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했다.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며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해 특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언제나 유아적인 상태로 머무르게 될 위험성이 많고 자기 중심적, 자아 도취성이 짙으며 공격적, 반항적, 비사회적이며 억지와 의존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거부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거나 벌을 주며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따라서 자녀들은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나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 발달의 지연, 이상행동, 신경증적 경향과 같은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 (김정남, 1997, 재인용).

임경숙(200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한 사회화가 자녀의 따돌림에 중요한 선행인자가 될 수 있음이 부각되었으며 잘못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따돌림을 주거나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Mussen(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허용적일 때 자녀는 활동적이며 다정하고 창의성이 높고 독자적이며 사회생활에 단호한 태도를 가진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며 단속적일 경우 자녀는 자기에

대한 공격성과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면과 내면적 갈등과 증상이 극대화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엄격한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유순한 태도를 가지며 규칙을 준수하고 순종적이며 공손하고 단정하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허용적일 경우 자녀는 공격적이고 조절되지 못한 행동이 극대화된다(우만선, 1996,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어져 왔다.

Rohner(1984,1986), 김성(1991)등은 부모의 수용과 거부가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결과를 이론화하여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자녀들은 적대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존심이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는 경향이 있고 거부당한 자녀들은 장차 성인이 되어 그들 자신의 자녀들을 거부하게 된다고 했다(정미자, 1998, 재인용).

Jenkins(1946)의 범죄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반사회적 범죄행동과 범죄적 성격을 낳게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Symonds(194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거부적 태도와 방법이 불량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수용되고 있는 자녀를 비교하여 전자는 후자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사리 깊으며 친절하고 장래에 관해서도 자신을 갖고 열심인데 반해 후자는 불안정하고 비행화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aldwin (1964)의 연구에서도 거부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며 인간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게 되고 비합리적 파괴행동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김신자,

2002, 재인용).

또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 자극이자 위협이다. 그리고 아동이 이를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초래하여 부적응적인 심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역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등 행동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이민식, 1999).

이상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보다 싫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성격적, 지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와의 관계

앞에서 다루었다시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들이 있었다(이지향, 2000).

Schaerer(1959)는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지각(perception)란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계의 사물을 인지하는 기능, 즉 사물로부터 오는 다양한 자극에 대한 통합적인 인지반응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작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자녀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머니는 자녀를 아끼고 사

랑하는 마음에서 벌을 주지만 자녀는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벌을 준다고 지각한다면 어머니의 의도적인 행동은 자녀에게 다르게 지각되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미자, 1998). 또한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매개역할을 한다(이민식, 1999).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정미자, 1998).

Madinnus(1966)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동의 지각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그들의 자아수용과 관련 지워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자아수용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 측면에서 보려고 한다고 했다(김신자, 2002).

정황순(1996)은 자녀는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율성보다 그 허용범위가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보다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수연(1997)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에서 비취업모의 경우가 취업모의 경우보다 거부-권위적인 태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높이 지각되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 여 모두 아버지를 자율지향적, 합리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반면에 어머니를 애정지향적, 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수연, 1985).

Medinnus(1965,b)은 또 다른 연구에서 범죄소년 집단과 일반소년 집

단 사이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범죄소년 집단은 아버지에 대해 특히 거부와 무시의 차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우만선, 1996).

변혜중(199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적 통제성을 갖게 되며 학업 성취 면에서도 통제성을 간접적인 매개 변인으로 해서 유의한 상관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태도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부모-자녀간의 친숙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지각한 자녀일수록 장래 전망은 밝으며 특히 부모 양육태도를 민주적인 것으로 지각한 자녀일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었고 전제적인 것으로 지각한 자녀의 장래 전망은 어둡다(김봉식, 1979).

유영희(1979)는 아동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 애정을 갖고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보다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정원식(1984)은 인간의 행동은 그가 가진 욕구에서 비롯되는 바 이 욕구 추구를 위한 활동이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욕구의 충족이 저지 당했을 경우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융통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상반응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적응장애 또는 부적응 행동이라 하였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 대해 거부형으로 지각할수록 MMPI 전 척도에 서 성격경향이 높아지고 기대형으로 지각할수록 정신병질, 편집증, 정신쇠약증, 정신분열증, 경조증의 성격경향이 높다(정명교, 1983).

이상의 연구에서 부모의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자아수용, 적응, 부모자녀관계, 장래전망, 성격발달 등에 실제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소재한 Y소학교의 5학년과 6학년 조선족 남, 여학생 320명과 그들의 어머니(조선족), 그리고 한국제주도 제주시에 소재한 N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 남, 여학생 330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연변에서는 2001년 12월에 연구 대상을 표집하여 조사하였는데 자료 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이나 어머니와 아동 중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311 부만이 최종 통계자료로 사용되었다. 제주도에서는 2001년에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조사하였는데 자료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이나 어머니와 아동 중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319부만이 최종 통계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Ⅲ-1>과 <표Ⅲ-2> 같다.

<표Ⅲ-1> 연변지역조사대상

연변	어머니	연령	30대	34
			40대	277
		계		311
	아동	성별	남	167
			여	144
		학년별	5학년	158
			6학년	153
		계		311
	계			622

<표Ⅲ-2> 제주지역조사대상

제주도	어머니	연령	30대	99
			40대	220
		계		319
	아동	성별	남	173
			여	146
		학년별	5학년	181
			6학년	138
		계		319
	계			638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1984년에 제작된 김기정의 검사지를 김신자(2002)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 양육태도를 묻는데 있어서 같은 내용의 서술만 바꾸어 어머니용과 자녀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등 세개 하위 영역의 각 문항수는 11문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평가방법은 항상 그렇다(4), 자주 그렇다(3), 가끔 그렇다(2), 전혀 아니다(1)의 4단계로 되어있다. 한편 채점방식에 있어서 수용-거부의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율-통제의 영역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을 허용하는 태도로 나타낸다. 그러나 비과잉-과잉은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기대를 나타낸다.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구성 및 관련문항의 번호를 나타낸다면 <표Ⅲ-3>과 같다.

<표Ⅲ-3> 검사도구의 구성 및 관련문항 번호

태도영역	성장촉진적	성장억제적	문항번호	문항수	α 계수
수용-거부	수용	거부	1,4,7,10,13,16, 19,22,25,28,31	11	.77
자율-통제	자율	통제	2,5,6,8,11,14, 17,23,26,29,32	11	.55
비과잉-과잉	비과잉	과잉	3,9,12,15,18,20 21,24,27,30,33	11	.83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방법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두 지역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및 어머니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t-test를 실시하였다.
- 2) 유의수준은 $p < .01$,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와 두 지역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 영역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태도 검사를 지역별, 어머니의 연령별 및 아동의 성별로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검증

연구문제 1은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지역별, 연령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IV-1>, <IV-2>, <IV-3>, <IV-4>와 같다.

1)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양육태도간의 차이 검증

<표IV-1>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지역별 차이

구 분		N	\bar{X}	SD	t
수용-거부	연변	311	36.25	4.53	20.06**
	제주	311	29.21	4.20	
자율-통제	연변	311	19.37	4.38	-3.42**
	제주	307	20.50	3.78	
비과잉-과잉	연변	311	29.38	5.26	18.61**
	제주	314	21.87	4.81	

(**: p < .01)

위의 <표Ⅳ-1>를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간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06$).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의 수용-거부적 태도($\bar{X}=36.25$)가 제주도어머니($\bar{X}=29.21$)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연변조선족어머니가 제주도어머니보다 매우 뚜렷하게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간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42$). 제주도어머니($\bar{X}=19.37$)는 연변조선족어머니($\bar{X}=20.50$)보다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제주도어머니들이 연변조선족어머니들보다 덜 통제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간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18.61$).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의 비과잉-과잉적 태도($\bar{X}=29.38$)가 제주도어머니($\bar{X}=21.87$)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매우 뚜렷하게 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표Ⅳ-1>에서 나타난 결과는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변조선족어머니가 제주도어머니보다 매우 수용적,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제주도어머니가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덜 통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조선족어머니들이 보다 수용적, 과잉적인 것은 대다수 중국조선족가정에 자녀수가 적거나 아니면 독신자녀를 둔 상황에서 자녀 중심적이 되어 자녀에게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특별히 자녀 진로에 관련해서 좋은 성적과 성공

만을 기대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제주도어머니들이 연변조선족어머니들보다 덜 통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제주어머니들이 자율적인 사회문화분위기 속에서 세대적인 차이를 넘어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연령에 따른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 검증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 양육태도가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기 앞서 연변과 제주도 두 지역의 어머니들의 양육태도가 연령에 따라 각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Ⅳ-2> 연령별에 따른 연변조선족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분	연령	N	\bar{X}	SD	t
수용-거부	30대	34	35.41	4.52	-1.41
	40대	277	36.35	4.53	
자율-통제	30대	34	19.08	3.62	-.41
	40대	277	19.41	4.47	
비과잉-과잉	30대	34	28.41	4.85	-1.14
	40대	277	29.50	5.31	

위의 <표Ⅳ-2>를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연변조선족 30대 어머니와 40대 어머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통제적 태도, 비과잉-태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Ⅳ-3> 연령별에 따른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연 령	N	\bar{X}	SD	t
수용-거부	30대	98	29.31	4.00	.29
	40대	213	29.16	4.30	
자율-통제	30대	97	20.53	4.07	.08
	40대	210	20.49	3.65	
비과잉-과잉	30대	97	21.72	5.02	-.37
	40대	217	21.94	4.72	

위의 <표Ⅳ-3>을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제주도 30대 어머니와 40대 어머니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통제적 태도, 비과잉-과잉 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 연령별 연변 조선족 어머니와 제주도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30대				40대			
		N	\bar{X}	SD	T	N	\bar{X}	SD	t
수용-거부	연변	34	35.41	4.52	7.39**	277	36.35	4.53	17.78**
	제주	98	29.31	4.00		213	29.16	4.30	
자율-통제	연변	34	19.08	3.62	-1.83	277	19.41	4.47	-2.92**
	제주	97	20.53	4.07		210	20.49	3.65	
비과잉-과잉	연변	34	28.41	4.85	6.74**	277	29.50	5.31	16.72**
	제주	97	27.72	5.02		217	21.94	4.72	

(**: $p < .01$)

위의 <표Ⅳ-4>를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30대 연변조선족 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간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39$). 30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의 수용-거부적 태도($\bar{X}=35.41$)가 제주도어머니들($\bar{X}=29.31$)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30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보다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변과 제주 두 지역 어머니가 비교적 통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6.74$). 30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의 비과잉-과잉적 태도($\bar{X}=28.41$)가 제주도어머니($\bar{X}=21.72$)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보다 매우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Ⅳ-4>에서,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40대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간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7.78$).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의 수용-거부적 태도($\bar{X}=36.35$)가 제주도어머니($\bar{X}=29.16$)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보다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92$). 제주도어머니($\bar{X}=20.49$)는 연변조선족어머니($\bar{X}=19.41$)보다 자율-통제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도어머니들이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덜 통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역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t=16.72$). 연변조선족어머니($\bar{X}=29.50$)가 비과잉-

과잉적 태도에서 제주도어머니($\bar{X}=21.94$)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 보다 매우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Ⅳ-4>는 3,40대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를 비교한 결과인데 연변조선족어머니가 제주도어머니보다 매우 수용적,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40대 연변조선족어머니가 제주도어머니보다 꽤 더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연변조선족가정에 자녀수가 적거나 아니면 외동자녀를 둔 상황에서 자녀에게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녀의 이상적인 진로를 위하여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40대 연변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 모두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는 있으나 30대 어머니들보다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중시를 돌려야 할 점이라고 보겠다. 20세 초반에 중국의 개혁개방을 맞은 30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나 제주도어머니들과 달리 40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은 위에서 제시한 가정 배경 외에도 6, 70년대에 “문화대혁명”이라는 특수한 사회환경과 단일한 계획경제 시대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그들 중 적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이상적인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였거나 자기 개인의 발전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다. 특히 그 당시 중, 고등 학생인 그들은 상급학교에 진학 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사회 직장인으로 되었거나 일반 가정 주부로 되었다. 때문에 이상과 같은 결과는 40대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소원을 온갖 심혈과 투자를 동원하여 자녀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부분은 부모와 자녀간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자율-통제영역에서 두 지역 30대어머니 모두 비교적 통제적으로 나타났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40대는 제주도 어머니가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덜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동일한 40대여서 아동과 비교적 큰 세대차이가 있기는 하나 제주어머니들이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덜 통제적인 것은 자율적인 사회문화분위기와 제주의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역할이라고 사료된다.

2. 지역별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검증

연구문제2는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지역별, 성별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IV-5> ,<표IV-6>,<표IV-7>,<표IV-8> , <표IV-9>와 같다.

<표IV-5>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N	\bar{X}	SD	t
수용-거부	연변	311	36.01	5.38	14.63**
	제주	309	29.90	5.01	
자율-통제	연변	311	18.55	4.47	-7.82**
	제주	312	21.33	4.39	
비과잉-과잉	연변	311	30.13	5.34	13.29**
	제주	308	24.15	5.84	

(**;p<.01)

위의 <표IV-5>를 보면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의 어머니 양도에 대한 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t=14.64$). 연변조선족아동($\bar{X}=36.01$)은 제주도아동($\bar{X}=29.90$)보다 어머니가 껍 수용적이라고 지각한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에도 1%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t=-7.82$). 제주도아동($\bar{X}=21.33$)이 연변조선족아동($\bar{X}=18.55$)보다 어머니가 자신들에 부여하는 자율성보다 그 허용 범위를 더 크게 지각한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t=13.29$). 연변조선족아동($\bar{X}=30.13$)은 제주도아동($\bar{X}=24.15$)보다 어머니가 껍 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한다.

<표Ⅳ-5>에서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 모두 수용적, 과잉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변조선족아동은 제주도아동보다 어머니가 껍 수용적이고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한다. 이는 형제수가 적거나 외동자녀인 상황에서 부모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받아 오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아 오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제주도아동은 연변조선족아동 보다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다고 지각한다. 이 결과는 제주도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상황에 따른 자율을 허용함과 아울러 아동들의 자기주장성이 비교적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대한 지각 차이 검증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차이를 검증하기 앞서 두 지역 아동들의 성별에 따른 지각차이를 검증하였다.

<표IV-6>성별에 따른 연변조선족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 차이

구 분		N	\bar{X}	SD	t
수용-거부	남아	167	36.29	5.31	1.01
	여아	144	35.67	5.46	
자율-통제	남아	167	18.61	4.69	.24
	여아	144	18.49	4.22	
비과잉-과잉	남아	167	30.25	5.48	.43
	여아	144	29.99	5.18	

<표IV-6>에서 보듯이 연변조선족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가 모두 매우 수용적, 과잉적으로 지각하는 동시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자율성 범위를 더 작게 지각한다.

<표IV-7> 성별에 따른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N	\bar{X}	SD	t
수용-거부	남아	166	29.55	5.10	-1.37
	여아	143	30.30	4.88	
자율-통제	남아	171	21.91	4.33	2.62**
	여아	141	20.62	4.37	
비과잉-과잉	남아	167	24.99	5.59	2.77**
	여아	141	23.16	5.99	

(**: $p < .01$)

위의 <표IV-7>를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제주 남아와 여아 모두 수용적으로 지각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62$). 제주도남아($\bar{X}=21.91$)는 여아($\bar{X}=20.62$)보다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율성보다 그 허용범위를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주도어머니들이 남아를 여아에 비해 좀 더 자율을 허용하는 반면 여아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한 가정규칙 등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t=2.77$).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아($\bar{X}=24.99$)가 여아($\bar{X}=23.16$)보다 매우 심한 과잉기대를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가정에서의 남아선호경향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친 영향이라고 사료한다.

<표Ⅳ-8>연변조선족남아와 제주도남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차이

구 분		남 아			
		N	\bar{X}	SD	t
수용-거부	연변	167	36.29	5.31	11.81**
	제주도	166	29.55	5.10	
자율-통제	연변	167	18.61	4.69	-6.73**
	제주도	171	21.91	4.33	
비과잉-과잉	연변	167	30.25	5.48	8.68**
	제주도	167	24.99	5.59	

(**: $p<.01$)

<표Ⅳ-9> 연변조선족여아와 제주도여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차이

구 분		여 아			
		N	\bar{X}	SD	t
수용-거부	연변	144	35.67	5.46	8.79**
	제주도	143	30.30	4.88	
자율-통제	연변	144	18.49	4.22	-4.19**
	제주도	141	20.62	4.37	
비과잉-과잉	연변	144	29.99	5.18	10.30**
	제주도	141	23.16	5.99	

(** : P < .01)

위의 <표Ⅳ-8>과 <표Ⅳ-9>를 보면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Ⅳ-8>에 보다 싶어 연변조선족남아와 제주도남아의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t=11.81). 연변조선족남아 (\bar{X} =36.29)는 제주도남아(\bar{X} =29.55)보다 어머니가 꼭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남아는 제주남아보다 형제수가 적거나 또는 외동자녀가정에서 부모들의 애정과 관심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한다.

한편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6.73). 제주도남아(\bar{X} =21.91)는 연변조선족남아(\bar{X} = 18.61)보다 허용적인 범위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의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풍토와 아동의 비교적 강한 자기주장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t=8.68$). 연변조선족남아($\bar{X}=30.25$)는 제주도남아($\bar{X}=24.99$)보다 어머니가 매우 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좋은 성적만 바라며 또한 대학으로 가는 것만이 출세의 길이라고 여기는 데서 “공부해라”, “몇 등 안에 꼭 들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너무 자주 들어 온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한다.

<표Ⅳ-9>를 보면 연변조선족여아와 제주도여아의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t=8.79$). 연변조선족여아($\bar{X}=35.67$)는 제주도여아($\bar{X}=30.30$)보다 어머니가 꽤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변여아는 남아와 마찬가지로 형제수가 적거나 외동자녀의 가정에서 남아 못지 않게 부모들의 애정과 관심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한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19$). 제주도여아($\bar{X}=20.62$)는 연변조선족여아($\bar{X}=18.49$)에 비해 허용범위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료된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0.30$). 연변조선족여아($\bar{X}=29.99$)가 제주도여아($\bar{X}=23.16$)보다 매우 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변조선족가정에서는 부모 혹은 온 가족이 여아에게도 남아 못지 않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고 사료된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 간의 차이 검증

연구문제 3은 지역별로 연변조선족 어머니와 아동 그리고 제주도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T-test한 결과는 <표IV-10>,<표IV-11>,<표IV-12>와 같다.

<표IV-10> 연변과 제주의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에 대한 차이 검증

구 분		N	\bar{X}	SD	t
수용-거부	연변	311	-.24	7.05	-1.79
	제주도	300	.65	5.18	
자율-통제	연변	311	-.83	6.66	-3.57**
	제주도	300	.87	5.02	
비과잉-과잉	연변	311	.74	7.61	-3.07**
	제주도	303	2.39	5.61	

(** : P<.01)

<표IV-10>에서 보듯이 수용-거부 영역에서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는 1% 수준에서 제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61$).

반면 자율-통제 영역과 비과잉-과잉 영역에서는 제주도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가 1% 수준에서 연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9$, $t=1.71$). 자율-통제 영역에서 제주($\bar{X}=0.87$)가 연변($\bar{X}=-0.83$)보다 뚜렷히 높으며 비과잉-과잉 영역에

서는 제주($\bar{X}=2.39$)가 연변($\bar{X}=0.74$)보다 매우 뚜렷히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의 비교적 자율적인 사회풍토에서 아동들의 자기주장성, 꾸밈없는 개성과 대학만이 아닌 여러 갈래 출세의 도경이 있는 사회실정의 관찰 및 비교적 빠른 진로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Ⅳ-11>연변조선족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 분		N	\bar{X}	SD	t
수용-거부	어머니	311	36.25	4.54	-.61
	아동	311	36.00	5.38	
자율-통제	어머니	311	19.37	4.39	-2.19*
	아동	311	18.55	4.47	
비과잉-과잉	어머니	311	29.38	5.27	1.71
	아동	311	30.12	5.34	

(*:P<.05)

위의 <표Ⅳ-11>를 보면 수용-거부적 태도와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아동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5%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9$). 연변조선족아동($\bar{X}=18.55$)은 어머니($\bar{X}=19.37$)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율정보다 그 허용범위를 더 적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아동 모두는 매우 수용적, 과잉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주는 동시에 자녀들도 그 점을 지각하고 있으나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걸고 있어 자녀들은 그 기대감을 너무 지나치게 지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중국의 개

혁개방이후 학력중심, 입시위주의 사회교육 풍토에서 자녀들의 개성을 불문하고 대학으로 가는 것만을 출세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자녀들의 출세는 자신들이 못 이룬 소원을 대신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자율-통제영역에서 불일치를 가져 왔다는 것은 단일한 계획경제사회에서 성장한 일대로서 현대 문화 속에서 엉거주춤 하고 있는 어머니세대와 현대화사회에서 성장하며 현대문화를 흥쾌히 받아들이는 아동세대와의 현저한 세대적,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IV-12>제주도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차이

구분	N	\bar{X}	SD	t
수용-거부	어머니	300	29.26	2.17*
	아동	300	29.91	
자율-통제	어머니	300	20.49	3.01**
	아동	300	21.36	
비과잉-과잉	어머니	303	21.86	7.41**
	아동	303	24.25	

(*:p<.05,**:p<.01)

위의 <표IV-12>에서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7). 제주도아동(\bar{X} =29.91)은 어머니들(\bar{X} =29.26)보다 더 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자율-통제적 태도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01). 제주도아동(\bar{X} =21.36)은 어머니들(\bar{X} =20.49)이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율성보다 그 허용범위를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비과잉-과잉적 태도의 경우에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7.41). 제주도아동(\bar{X} =24.25)은 어머니

들($\bar{X}=21.86$)보다 더 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한다.

제주어머니와 아동은 수용-거부영역, 자율-통제영역 및 비과잉-과잉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주아동들은 어머니보다 더 수용적이며 덜 통제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가정이 주로 부부중심 체계를 이루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지역의 부모교육의 활성화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칭찬과 공감적인 이해를 많이 하고 자기주장성이 뚜렷한 자녀들에 대해 비교적 자율적인 허용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비과잉-과잉영역에서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과잉적이라고 지각하였으나 아동이 딱 과잉적이라고 지각하여 그 지각차이는 비교적 뚜렷히 나타났다. 이것은 비록 어머니가 수용적, 덜 통제적으로 대하지만 역시 학력중심, 입시위주 사회교육풍토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받는 비교적 높은 기대감은 학교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서는 더욱 과잉적으로 지각하게 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V. 요약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 · 결론 및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요약

본 연구는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지역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지역별,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지역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소재하고 있는 Y소학교의 5학년과 6학년 남·여 학생 320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한국 제주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N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 남·여 학생 33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나 연변지역에서는 311 부, 제주지역에서는 319만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양육태도를 검사하기 위해 김기정(1984)이 제작한 양육태도 질문지를 김신자(2002)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양육태도를 묻는데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서술만 바꾸어 어머니용과 자녀용으로 구분하여 재 제작한 검사지이다.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의 3개 영역이다.

자료분석은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및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는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어머니($\bar{X}=36.25$)가 제주도 어머니($\bar{X}=29.21$)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고($p<.01$),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제주도어머니($\bar{X}=20.50$)가 연변조선족어머니($\bar{X}=19.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는 연변조선족어머니($\bar{X}=29.38$)가 제주도어머니($\bar{X}=21.87$)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는 30대와 40대가 부동한 결과를 보이였다.

30대 어머니들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 어머니($\bar{X}=35.41$)가 제주도 어머니($\bar{X}=29.31$)보다 수용적 태도를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1$)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제주도어머니($\bar{X}=20.53$)가 연변조선족어머니($\bar{X}=19.08$)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어머니($\bar{X}=28.41$)가 제주도어머니($\bar{X}=21.72$)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40대어머니들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어머니($\bar{X}=36.35$)가 제주도어머니($\bar{X}=29.16$)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1$)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제주도어머니($\bar{X}=20.49$)가 연변조선족어머니($\bar{X}=20.49$)보다 좀 높게 나타났으며($p<.01$),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어머니($\bar{X}=29.50$)가 제주도어머니($\bar{X}=21.94$)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셋째, 어머니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차이는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아동($\bar{X}=36.01$)이 제주도아동($\bar{X}=29.9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p<.01$).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제주도아동($\bar{X}=21.33$)이 연변조선족아동($\bar{X}=18.5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1$).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아동($\bar{X}=30.01$)이 제주도아동($\bar{X}=24.15$)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p<.01$).

넷째, 성별에 따른 연변조선족아동과 제주도아동이 어머니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간의 차이는 남아와 여아가 부동한 결과를 나타냈다.

남아의 경우,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남아($\bar{X}=36.29$)는 제주도남아($\bar{X}=29.5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p<.01$)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제주도남아($\bar{X}=21.91$)가 연변조선족남아($\bar{X}=18.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1$) 비과잉-과잉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남아($\bar{X}=30.25$)가 제주도남아($\bar{X}=24.99$)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여아의 경우,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연변조선족여아($\bar{X}=35.67$)가 제주도여아($\bar{X}=30.30$)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제주도여아($\bar{X}=20.62$)가 연변조선족여아($\bar{X}=18.49$)보다 높게 나타났다($p<.01$). 또한 비과잉-과잉적태도에서 연변여아($\bar{X}=29.99$)가 제주도여아($\bar{X}=23.16$)보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다섯째, 연변과 제주 두 지역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는 자율-통제 영역에서 제주($\bar{X}=0.87$)가 연변($\bar{X}=-0.83$)보다 뚜렷히 높게 나타났다($P<.01$). 비과잉-과잉 영역에서 제주($\bar{X}=2.39$)가 연변($\bar{X}=0.74$)보다 매우 뚜렷히 높게 나타났다($P<.01$).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지역별로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변의 경우, 수용-거부적 영역과 비과잉-과잉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자율-통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아동($\bar{X}=18.55$)은 어머니($\bar{X}=19.37$)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어머니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에는 각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용-거부 영역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아동($\bar{X}=29.91$)은 어머니($\bar{X}=29.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율-통제 영역에서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 ($\bar{X}=21.36$)은 어머니($\bar{X}=20.4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과잉-과잉 영역에서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 ($\bar{X}=24.25$)은 역시 어머니($\bar{X}=2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결론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변조선족어머니는 양육태도에 있어서 제주도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수용적이며 과잉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도어머니는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더 자율을 허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30대 어머니들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보다 더 수용적이며 과잉태도를 나타낸다. 40대 어머니들의 경우, 연변조선족어머니들이 제주도어머니들보다 매우 수용적이며 과잉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제주도어머니는 연변조선족어머니보다 더 자율을 허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연변조선족아동은 제주도아동보다 매우 수용적, 과잉적으로 지각하며 제주도아동은 연변아동보다 자율성 허용범위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

한편, 연변조선족 남아와 여아는 제주도남아와 여아보다 매우 수용적, 과잉적으로 지각하며 제주도 남아와 여아는 자율성 허용범위를 더 큰 것으로 지각한다.

셋째, 연변과 제주 두 지역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영역에서 제주가 연변보다 비교적 뚜렷한 지각차이가 있다.

어머니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를 지역별로 알아 본다면:

연변의 경우, 아동은 어머니가 부여하는 자율성 허용범위를 더 작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아동은 어머니보다 더 수용적, 과잉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부여하는 자율성 허용범위 또한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3.제언

종합적으로 연변조선족어머니와 제주도어머니들이 양육태도에서 동일점과 차이점이 보였는데 상호보완할 면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서 개선하여야 할 몇 가지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첫째, 연변과 제주 두 지역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에서 벗어나 자녀개성에 알맞는 성장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수준을 높임으로써, 자녀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연변지역에서는 전반사회인의 인간발달을 위한 평생교육시설과 바람직한 청소년 양성을 위한 상담시설의 개설 및 학부모 관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끝 매듭지으면서 아쉬운 점도 없지만 앓다. 자녀교육과 관련된, 특히 양육태도에 관한 폭 넓고도 깊이가 있는 많은 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부와 모의 양육태도의 일치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두 지역 내지 두 나라 전반에서의 아버지 양육태도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어머니 양육태도보다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일치와 불일치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외에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성교육 등 자녀교육에 관련된 폭 넓은 비교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기정(1985). 학업성취와 지간 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식(197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장래전망에 관한

-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자(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아동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남(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일치정도와 자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외순(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 통제 유형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교육대 학교 석사 학위논문.
- 변혜중(1990).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내외 통제성 및 학업 성취와의 관계,
- 손 희(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귀인 성향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복례(197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성격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교육대학 논문지.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항(2000). 지각성향에 따른 아동의 타인 인상평가와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와의 지각 불일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감성지능 및 창의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신(1995). 어머니-자녀간의 성격 지각 차이, 고려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숙(2000).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대처방식이 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 우만선(1996). 어머니의 성격특징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상관, 광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노트, 11(1).
- 유영희(1979).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와 그 자녀의 적응,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자(1998). 어머니 양육된 태도 및 자녀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교(198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외(1984). 생활지도, 한국통신대학.
- 정황순(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및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연(1997). 어머니 취업유무 및 일의 만족도와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 효성 가톨릭

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영.김수정(1995). 아동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학지사

Syc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 Y. : Bureau of Publication. Teacc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ring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Mothers
-centered on Yanbian and Jeju

By Li, Feng-Yue

Counseling Psychology Major

College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Huh, Chul-Soo

The study expounds the differences in the rearing attitudes between Yanbian and Korean mothers and Jeju-do mothe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ttitudes in the two regions, aiming at provid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children' education and the necessity for the explor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in Yanbian region.

For the study, investigations have been made among 320 student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 and their mothers of Y Elementary school in Yanji City,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and 330 students and their mothers from five classes in Grade Five, Four classes in Grade Six of N Elementary school in Jeju City, Jeju-do, Republic of Korea, taking only the honestly answered sheets as the materials for the analytical study. Thus only 311 answer sheets from Yanbian region and 319 from Jeju region have been utilized for the actual study. Materials regarding the study have been electronically processed using the SPSS/PC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aring attitudes between Yanbian Korean mothers and Jeju-do mothers, I. e, the study shows that Yanbian Korean mothers take more acceptable, controllable and excessive attitudes than Jeju-do mothers.

In the case of mothers in their thirties, Yanbian Korean mothers are more acceptable, excessive than those of Jeju-do. In the field of self-control and control, statistically there are no clear differences. In the care of mothers in their forties, Yanbian Korean mothers are very much more acceptable, controllable, and excessive than those of Jeju-do.

2.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Yanbian Korean children and Jeju-do children in their consciousness toward the rearing attitudes. Yanbian Korean children perceive the attitudes more acceptably, controllably,

excessively than those of Jeju-do.

Meanwhile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caused by different genders. Yanbian Korean boys and girls also perceive the attitudes more acceptably, controllably, excessively than those of Jeju-do.

3.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mother's rearing attitudes and the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in the two regions.

In the case of Yanbian, there are partial differences in the field of acceptance and refusal, non-excessiveness and excessiveness. But in the field of self-control and control, children perceive less the range of self-control than that which is being provided to them by mothers.

In the case of Jeju, children perceive mothers' rearing attitudes acceptably, controllably, excessively.

By and large, both Yanbian and Jeju children perceive the attitudes very acceptably and excessively, while Yanbian children perceive more controllably than Jeju children.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aring attitudes between Yanbian Korean mothers and Jeju-do mothers, some aspects need to be mutually complemented. Especially the fact that Yanbian Korean mothers comparatively take more controllable, excessive attitudes and there exists the incoherence in the field of self-control, and control is worthy of careful consid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situations in Yanbian region, the following is necessar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roles of parents and regularly carry out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e parents, organically combining the family education with the school education.

Second, the society should help establish a great number of educational units for life-long education so that parents, teachers and other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develop a harmonious personalities.

Third, relevant programs or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let the parents and children fully understand themselves and accept each other. Thus, through the scientific diagnosis of children' individual characters and the provision of suitable lif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m, the children can develop their individual characters in the basis

of overall development.

부 록

<부록 1> 양육태도 검사지(어머니용)

<부록 2> 양육태도 검사지(어린이용)

양육태도에 대한 설문지

<어머니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훌륭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 주는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에게 대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리 봉 월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연령 : 30대이하() 40대() 50대이상()
2. 학력 : 중졸() 고졸() 대졸()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O표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가끔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1. 나는 나의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있다.	4	3	2	1
2. 나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자녀가 함부로 만지면 야단을 친다.	4	3	2	1
3. 나는 나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	4	3	2	1
4. 나는 나의 자녀와 마음이 잘 통한다.	4	3	2	1
5. 나는 자녀가 친구들과 잠깐만 만나도 야단치며 공부만 하라고 한다.	4	3	2	1
6. 나는 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4	3	2	1
7. 나는 나의 자녀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주는 일이 없다.	4	3	2	1
8. 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크게 야단을 친다.	4	3	2	1
9. 나는 자녀의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녀에게 심한 꾸중이나 벌을 준다.	4	3	2	1
10. 나는 나의 자녀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자녀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1. 나는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4	3	2	1
12. 나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만 만족해한다.	4	3	2	1
13. 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한다.	4	3	2	1
14. 나는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	4	3	2	1
15. 나는 자녀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4	3	2	1
16. 나는 자녀가 이야기하면 자녀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 알아차린다.	4	3	2	1
17. 우리 집에서는 나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4	3	2	1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O표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가끔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18. 나는 자녀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한다.	4	3	2	1
19. 나는 자녀가 무엇을 물어 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준다.	4	3	2	1
20.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4	3	2	1
21. 내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의 학교 성적이다.	4	3	2	1
22. 나는 자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잘 한다.	4	3	2	1
23. 자녀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4	3	2	1
24. 나는 자녀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한다.	4	3	2	1
25. 나는 자녀와 이야기하면 자녀의 뜻을 알론 이해하지 못한다.	4	3	2	1
26. 나는 어떤 일든지 자녀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4	3	2	1
27. 나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4	3	2	1
28. 나는 자녀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	3	2	1
29. 우리 집에서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4	3	2	1
30. 나는 자녀에게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4	3	2	1
31. 나는 자녀가 심부름을 잘 못 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곤 한다.	4	3	2	1
32. 나는 자녀에 관한 일도 내 마음대로 정하여 버린다.	4	3	2	1
33. 나는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만을 바란다.	4	3	2	1

부모 · 자녀관계에 대한 설문지

<어린이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부모 · 자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훌륭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 주는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리 봉 월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 · 여
2. 학년 : 5학년() · 6학년()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표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 다
1. 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있다.	4	3	2	1
2.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함부로 만지면 야단을 친다.	4	3	2	1
3. 어머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	4	3	2	1
4. 어머니는 나와 마음이 잘 통한다.	4	3	2	1
5. 어머니는 내가 친구들과 잠깐만 만나도 야단치며 공부만 하라고 한다.	4	3	2	1
6. 어머니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4	3	2	1
7. 어머니는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주는 일이 없다.	4	3	2	1
8. 어머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크게 야단을 친다.	4	3	2	1
9. 어머니는 나의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나에게 심한 꾸중이나 벌을 준다.	4	3	2	1
10.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11.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4	3	2	1
12.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수”를 받아야만 만족해한다.	4	3	2	1
13. 어머니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한다.	4	3	2	1
14.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	4	3	2	1
15. 어머니는 나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4	3	2	1
16.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하면 나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 알아차린다.	4	3	2	1
17.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4	3	2	1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면 4번, 자주 그렇다면 3번, 가끔 그렇다면 2번, 전혀 아니다면 1번에 0표 해주십시오.	항 상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가 끔 그 렇 다	전 혀 아 니 다
18. 어머니는 나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한다.	4	3	2	1
19.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물어 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준다.	4	3	2	1
20. 어머니는 나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4	3	2	1
21. 어머니가 나에게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 성적이다.	4	3	2	1
22. 어머니는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잘 한다.	4	3	2	1
23.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4	3	2	1
24. 어머니는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한다.	4	3	2	1
25.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하면 나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	4	3	2	1
26. 어머니는 어떤 일든지 나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4	3	2	1
27. 어머니는 나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4	3	2	1
28.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	3	2	1
29. 우리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4	3	2	1
30. 어머니는 나에게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4	3	2	1
31. 어머니는 내가 심부름을 잘 못 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곤 한다.	4	3	2	1
32. 어머니는 나에게 관한 일도 어머니 마음대로 정하여 버린다.	4	3	2	1
33. 어머니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기만을 바란다.	4	3	2	1

감사의 글

이 논문을 마무리하는 지금, 뒤늦게라도 석사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 가장 기뻐하시며 내 딸만을 믿는다하시며 격려해 주시던 연로하신 어머니와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아버지의 생각에 눈물이 앞섭니다.

아버지의 배움을 받으며 중국과학기술대학으로 가는 길을 나섰고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석사공부를 마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늘과 같은 사랑에 이 딸은 무한히 행복합니다. 살아 계시는 어머니께라도 효도를 다 하여 아버지 은혜를 함께 보답하겠습니다.

허철수 교수님을 처음 만나 상담에 관한 말씀을 듣던 그 날이 어제 같은데 어연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저의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시고 자상하신 허교수님의 지도와 도움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는 모든 애로를 박차고 남다른 석사공부를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이라곤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중국·연변 땅에 상담의 씨앗을 뿌리는데 한 몫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엄한 모습이나 내심 따뜻하신 고명규 교수님, 유다른 이 중국 유학생을 너그럽게 잘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글밭을 날리며 쓰신 멋진 한자이며 진지하게 교수하시는 모습이며 고심히 연찬하시는 모습은 영원히 제자의 마음속에 간직될 것입니다.

언제나 조용하시고 인자하신 박태수 교수님, 조그마한 성과가 보여도 잘해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초에 제주대학교에 와서 교환교수로 있으면서부터 오늘에 이

르기까지 저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신 전 제주대학교 조문부 총장님, 현 부만근 총장님, 전 사범대학 김규용 학장님, 김항원 학장님, 김종훈 부학장님, 현완송 교무부장님 그리고 현 사범대학 정충덕 학장님, 강영봉 교수님, 김경순 선생님..... 여러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따뜻한 미소, 작은 관심과 도움은 타국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모교-제주대학교를 위해 영예를 빛내겠습니다.

물리석사공부를 했으면 박사과정에 들어가야지, 부교수로 또 무슨 석사공부를 시작하느냐고 의아해 하시던 김병민 부총장님 그리고 최성일 원장님, 허나 하고픈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말씀에 깊은 이해와 허락을 주셔서 진정 감사하며 많은 폐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대신 연변대학의 창성과 연변의 사범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몇 해간 많은 이해와 도움을 준 학부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선견지명하게 상담을 연변에 받아들이고 또한 저에게 상담의 실천을 무난히 하도록 기꺼이 활동무대를 마련해 주신 리용 국장님과 강동묵 국장님 그리고 리정자 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저의 가장 큰 후원자인 남편 박재원씨와 아들 정군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 해 동안 억척스레 고독과 가무의 번거로움을 감당해 낸 당신이 있었기에, 고중시절부터 대학생화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대견스럽게 자기 앞에 일을 잘 감당해 오며 전문 비서 못지 않게 수요되는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대신 아버지의 다정한 동무가 되어 준 아들이 있었기에 또한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가족에게 꼭 다 못한 사랑과 정성 보여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동생 향선의 부부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다는 말을 보낸다. 너희들이 연로하신 어머니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린 덕에 언니는 마음놓고 이 공부를 마쳤다. 조용히 앉아 뛰어 온 길을 돌이켜 보면 뿌듯한 면도 없지 않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항상 고독하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 뵙지도 못하고 그저 일과 공부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 다닌 것이 너무나도 어머니에게 죄송스럽고 미안만하다. 어머니가 세상 뜬 다음 후회하지 말고 생전에 잘 해 드리라 하던 너희 원망스러운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려 오는구나. 글쎄, 어머니께서는 딸의 얼굴을 자주 보시는 것이 매일과 같은 소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였건만.....귀국하면 언니 몫을 넉넉히 잘 할 것이니 믿어다오.

고마운 인사를 나누면서 빼 놓을 수 없는 조경필 단장님과 박혜자 주석님 내외 분, 항상 집 근심은 하지 말고 하는 공부 잘 마치라고 격려와 뒷힘이 되어 주신 당신들의 관심과 도움에 목이 맵니다.

지금까지 저를 관심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며 이 논문을 한 조선족 단발머리 처녀애를 의젓한 대학교교수로 양성해 준 친애하는 조국 - 중국에 바칩니다.

한국 · 제주대학교 독신교수기숙사에서

2002년 6월3일